

# 광주시·교육청·5개 자치구 “대선 투표 목표율 92.5%”

### 투표 참여 공동캠페인 전개 할인 이벤트 등 맞춤형 지원 역대 최고치 목표 독려 활동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5개 자치구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공동 활동을 전개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김이강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문인 북구청장·박병규 광산구청장, 이경선 광주시교육감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3일 진행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광주시민들이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펼치는 기회인 동시에 투표를 통해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기회이다”며 “광주는 1987년 직선제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역대 최고인 92.5%를 향해 투표 독려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역대 대선 투표율은 13대(노태우) 92.4%, 14대(김영삼) 89.1%, 15대(김대중) 89.9%, 16대(노무현) 78.1%, 17대(이명박) 64.3%, 18대(박근혜) 80.4%, 19대 문재인(82%), 20대(윤석열) 81.5%로 17대

를 제외하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들 기관은 시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6대 실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요양시설과 병원 등 447곳에 거소투표소 설치해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청년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광주지역 18개 대학 총장·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친구랑 투표랑 1+1’ 캠페인을 추진한다.

경제3단체, 노동단체, 주요 기업체 및 산업단지와 협력해 유연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제과·음식·커피 등 할인이벤트, 오월광주 나눔세일(49개 업체)과 연계한 ‘6·3 투표캠페인’ 나눔세일도 함께 진행한다.

‘잠깐 멈춤, 생애 첫 투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해 고3 학생의 생애 첫 투표를 응원하고, 초·중·고 전 학년에게도 투표의 의미를 알리는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357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1층 우선 설치, 임시 기표소 마련, 안내요원 배치 등 일체 점검을 실시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누구나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 광주의 행정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반보 앞서 걸겠다”며 “광주 시민이 더 많이, 더 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경선 교육감, 5개 구청장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서 국내 최대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열린다

### 9월 ‘방문의 해’ 연계 한자리

국내 최대 규모의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12일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제2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급변하는 공동체 속 박물관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과 관련 산업체, 문화기획사 등이 참여해 국내외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조명한다.

기획전시, 포럼·강연, 체험행사, 실감콘텐츠, 비즈니스, 박물관·미술관 기념품 판매 등 전시·체험·산업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박람회에서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 등 수집가들의 소

장품을 재구성하는 등 그들의 생전 수집 활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행사에서는 ICOM(국제박물관협의회)의 주제를 반영한 글로벌 박물관 트렌드를 소개하고, 인공지능(AI)·저출산·고령화·다문화 등 사회 변화와 박물관의 접점을 모색하는 전문가 강연·국제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는 광주

의 문화감성에 신기술과 세계적 담론을 결합한 새로운 문화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잡고, 광주의 미래 문화를 함께 그려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국내 3대 문화시설인 역사박물관 민중화역사관 광주 설립,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 문화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용현 기자

기사제보받습니다 → jndnnews@naver.com  
전남매일 독자와 함께 정직한 신문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남매일 창간 36주년 기념공연  
2011 CJ AZIT CREATIVE MINDS 선정작  
2012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에그인양코트 최우수작  
2013 국외대상 올해의 뮤지컬작  
2013 다문화지원 올해의 베스트 창작뮤지컬 BEST-3  
2013 제19회 한국뮤지컬대상 극본상  
MUSICAL  
여신님이 보고 계셔  
이동하 김지철 박준휘 류동휘 류찬열 차용학 안창용 조용휘 정세운 문성일 김도하 한보라  
2025.6.14 - 15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예매 인터파크티켓 1544-1555 | 티켓링크 1588-7890 | 예스24티켓 1544-6399

## 전남 28호 민간정원 해남 ‘비원’ 정식 개방

### “생활속 정원문화 활성화”

전남 제28호 민간정원인 ‘해남 비원(秘園)’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2일 정식 개방됐다.

비원은 해남군 삼산면에 있으며, 주변 숲과 마을 들뜬 경관이 잘 어우러져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조성한 정원이다. 앞쪽에는 옥산, 뒤쪽에는 우달매골이 자리해 야트막한 산들로 둘러싸였다. 옛 마을의 산비탈 아래 다랑이는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김미정 정원주는 “2024년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아 그 영광을 지역민과 나누고자 민간정원 등

록을 추진해 정식 개방하게 됐다”며 “해남의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지역민과 함께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원은 1만769㎡ 크기로, 팽나무와 느릅나무, 철쭉, 매화, 목서, 모과 등 7,0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을 정원주가 직접 구해 심고 가꿨다.

한울정원, 바위정원, 바람의 정원, 수국동백정원, 장미정원 등 5개 주제 정원의 배치가 돋보인다. 시그니처인 한울정원은 ‘바른 우리의 터전’이라는 의미다. 낮은 언덕과 연못, 굽이굽이 펼쳐진 산책로, 사계절 내내 산위에서 시원한 물줄기 떨어지는 폭포가 있다.

비원에는 총 9개의 크고 작은 연못이 있다. 바위정원과 연결돼 있고, 바위정원을 따라 정상에 오르면 바람의 정원을 만날 수 있다. 비원 전경과 남쪽으로 넓게 펼쳐진 들판을 볼 수 있으며, 날마다 빛깔이 다른 노을 풍경을 선사한다.

바람의 정원 옆으로 2,000여평의 너른 땅에 수국과 동백이 꽃피우는 수국동백정원은 여름에 푸른수국이 청량감을, 겨울엔 붉은 동백이 마음 따뜻함을 선사한다. 바람의 정원을 내려와 별빛전망대에서 시작되는 60m의 장미정원에는 향기로운 온갖 종류의 장미꽃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 “톡톡튀는 청년 아이디어로 섬·해양관광 활성화”

### 전남도, 26일까지 콘텐츠 공모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12일 “오는 26일까지 ‘2025 전남 섬·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18시부터 45세(2025년 1월 1일 기준)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연안 16개 시군의 섬·해양 자원을 활용한 신규 관광 콘텐츠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체류형 테마여행 코스 △지역 명소나 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기념품 △지역 식재료와 특산품을 활용한 미식 상품 △폐가·폐교를 활용한 프로젝트, 섬 축제 등 지역 이벤트 △홍보콘텐츠 등이다.

총 2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최우수상 1건 150만원, 우수상 2건 각 100만원, 장려상 7건 각 50만원, 입상 10건 각 3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시상금뿐 아니라 7월 중 모집 예정인 2025 청춘어람 육성사업 참가자 선발 시 우선권이 주어지며,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남도 청춘어람 육성사업은 2021년 최초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7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했다. 현장활동·멘토링·시범운영 등 다양한 지원으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청년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근산 기자

## 전남도의회, 석화·철강 위기대응 특위 가동

전남도의회가 동부권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구조 재편, 고용 안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 12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전방산업 침체, 고용 불안, 세수 급감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전남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산업위기의 최일선에 놓인 여수·광양지역 의원들뿐만 구성돼 지역 현안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근산 기자